

한국일보

http://sf.koreatimes.com 510-777-1111

미주판 San Francisco

<제 8531호>

THE KOREA TIMES

Tuesday, January 19, 2010

AHS E. 18th Groundbreaking Event, Jan. 16th 2010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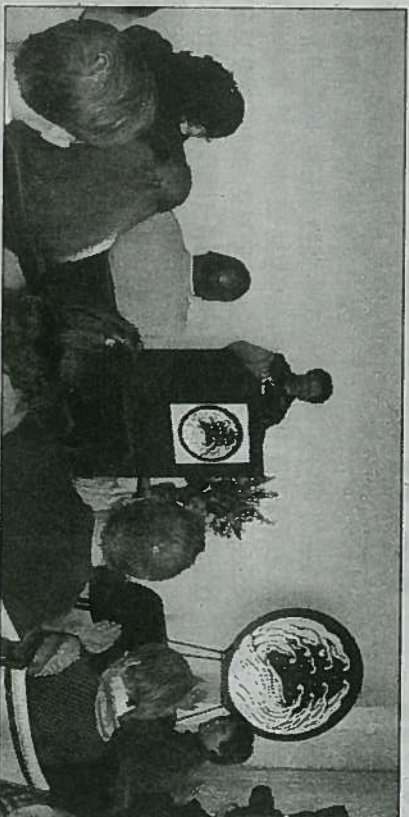
AHS 동양인건강진료소, 새 진료센터 착공

10개 검사실서 연간 5천여명 추가 진료 가능

동양인건강진료소가 이스트 레이크에
잇 지역에 8,500평방피트 크기의 새 진
료센터를 연다.

10개 검사실에서 연간 5천여명의 추
가적인 환자를 돌볼 수 있게 되는 새 진
료센터에는 120만달러가 투입돼 착공
되며 4월 첫째주 완공, 5월 오픈을 목
표로 하고 있다.

16일(토) 오후 2시 열린 착공식에는
바버라 리(Barbara Lee) 연방 하원
의원을 비롯, 셰리 히로타(Sherry Hi-
rota) 동양인건강진료소 CEO, 샌드레
스완슨(Sandre Swanson) 거주 하원
의원, 엘리스 라이-벡커(Alice Lai-
Bicker) 알라메다 카운티 수퍼바이저,
팻 커니건(Pat Kernighan) 오클랜드
시의원 등이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. 세
리 히로타 CEO의 인사말에 뒤이어 나
온 바버라 리 의원은 “헬스케어 관련
예산편성이 지난해 매우 어려웠다”며
서 “올해도 마찬가지로 힘든 싸움을 해
야 할 것”이라고 말했다. 리 의원은 “라



바버라 리 연방 하원의원이 16일(토) 동양인건강진료소의 새 진료센터 착공식에 참석
해 축사를 전하고 있다.

티노계, 흑인 커뮤니티와 주류 커뮤니티
와의 의료 불평등이 심각하다”면서
“이러한 점이 헬스케어 개혁안이 추진
되는 가장 큰 이유”라고 덧붙였다.

1974년에 설립된 동양인건강진료소
는 수입이 적고 영어에 익숙치 않은 아
시안계 이민자들을 중심으로 건강관

리를 제공하며 이민법 및 의료권리를
위한 옹호활동도 전개하고 있다. 현재
환자들 중 중국계가 71.4%, 베트남계
가 8.1%, 중국/베트남계가 5.4%, 한인
이 네번째로 많은 비율인 2.8%를 차지
하고 있다.

<박승범 기자>
sbpark@koreatimes.com